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기준금리 인상과 영향

- **한은은 3월 10일 기준금리를 기존의 2.75%에서 3.00%로 0.25%p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,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%대의 기준금리를 기록함.**
 - 한은은 지난 1월 물가상승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기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물가안정 기초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함.
 - 이번 인상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, 농·축산물,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4.5%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향후 경기상승으로 인한 수요압력 증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기인함.
 -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9일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 예금증서(CD) 91일물 금리가 1월 12일 2.80%에서 3.30%로 0.50%p 급증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선반영됨.

- **징검다리식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은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가계 및 기업부채의 이자 부담 상승, 부동산 시장의 침체 장기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.**
 -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의 신규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미 물가수준이 많이 높아진데다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커질 경우 가계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.
 -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총부채상환비율(DTI) 규제완화 기한의 만료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신규 주택수요자와 기존 담보대출자 모두 부담이 커져 시장의 위축이 장기화 될 수 있음.
 - 한편,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및 지속적인 건설회사 구조조정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연체율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.

(통화정책방향 등, 한국은행 등, 3/10)